

“고교 선택을 위한 다양한 진로 정보가 궁금해요”

취재 박선영 리포터 hena20@naeil.com



거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자녀
고2, 중3, 중1



구독 기간
1년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작년에 첫째 아이 고등학교 설명회에서 진로부장 선생님이 꼭 구독해보라며 권해주셨어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입 용어나 계속 바뀌는 교육 제도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어 큰 도움이 돼요. 식탁 위에 두고 고등학생인 첫째 아이와 함께 관심 있는 기사를 읽으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이슈 인터뷰_〈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구범준 대표
**15분으로 대중 사로잡은 비결,
나의 어둠을 고백하는 용기조**

“저와 아이들이 즐겨 보던 〈세바시〉의 구범준 대표님의 인터뷰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어요. 전문가의 깊이 있는 시각을 접하며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볼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대중적인 인물을 만나고 싶어요.”



김한나의 이슈 콕콕_한미 · 한일 정상회담
**첫발 내디딘 실용 외교,
이제는 국익 우선의 시간**

“이슈 콕콕’은 어려운 시사 이슈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더라고요.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짚어줘 교육적으로도 유용합니다.”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매년 대학마다 전형이 달라지고 제도까지 수시로 변하다 보니 둘째, 셋째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2인 첫째가 아직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 합격생 인터뷰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입시 제도나 어려운 용어 등을 두루 알아야할 때 유용해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첫째의 대입 못지않게 중3인 둘째의 고등학교 선택도 고민이에요. 첫째와 성향이 달라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종합전형을 고려해 자사고도 생각해봤지만 선행학습이 필요하고 치열한 내신 경쟁 속에서 잘 버텨줄지 걱정됩니다. 차라리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가 낫지 않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해요. 일반고라면 남녀 공학으로 보낼지, 남고로 보내야 할지도 망설여집니다.

〈내일교육〉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일반고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반고 학생의 학교생활, 졸업생 인터뷰 등이 다양하게 실린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둘째와 셋째는 중학생이라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고입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다뤄주면 좋겠어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에 보다 다양한 진로 정보가 있다면 선택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Reporter's A/S

달라지는 대입 제도와 내신·수능,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할 고교 선택 기준까지 짚어주는 기사를 참고해보세요. 5등급제 내신 적용 방식, 선택 과목 없는 수능의 의미, 과목 선택이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같은 핵심 포인트를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입을 앞둔 중3에게 필요한 고교 유형별 특징과 교육과정 편제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도 도움이 될 거예요.

본지 1159호
‘WEEKLY THEME_확 바뀌는
2028 대입 고교 선택 기준은?’
기사 참고

